

심포지엄 「國學으로서의 地理學」 제 1 주제

國學으로서의 地理學 : 現況과 方法의 摸索

朴 英 漢\*

《目 次》

- |                        |                   |
|------------------------|-------------------|
| 1. 序                   | (3) 光復後 社會變動과 地理學 |
| 2. 國土에 대한 地理學의 研究動向    | 3. 方法의 摸索         |
| (1) 朝鮮時代의 地理學          | 4. 發展을 위한 몇가지 提言  |
| (2) 日帝의 強占과 韓國地理學의 暗黒期 |                   |

1. 序

國學으로서의 地理學은 韓國學으로서의 地理學이며, 이것은 國土空間의 歷史性과 固有性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학은 주로 과거의 韓國文化에 대한 역사적 연구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드나, 본고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본 주제의 내용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국의 지리학이 걸어온 길을 살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토의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민족이 살아온 과정은 국토에 스며있다.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국토가 한데 어울려 이룩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창달해 나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과제이다.

그러면, 국토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국토는, 단순한 物的 要素가 아닌 우리들 삶의 보금자리이다. 국토는 우리 조상들이 땀흘려 노력한 흔적이 새겨지고 그들의 정신이 스며있는 한민족의 生活空間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유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는 어느 시대에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유린되거나 파괴되어서도 아니되며, 민족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國土領域은 한반도에 발을 딛고 만주 벌판에 웅장한 날개를 펼친적도 있었고, 일시나마 타민족에게 짓밟힌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토의 분단은 반드시 극복되어 하나로 이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는 바로 한민족이 삶을 영위하여온 價値觀과 生活樣式이 용해되고 '우리들의 현실적 삶이 춤추는 현장'이다. 따라서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의 대상은 고유한 민족문화가 숨쉬고 있는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이것은 추상적 공간이 아닌 우리들의 삶이 담긴 구체적 공간이다.

지리학은 그 역사가 매우 긴 학문으로, 地誌學, 景觀學, 生態學 또는 空間科學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시대에 따라 혹은 학자들의 관심정도에 따라 그 정의도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공통점은 地表科學이란 점이다. 여기에는 地表現象을 요소별로 다루려는 측면과 地表의 部分空間인 地域에 내재된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들 양자는 상호보완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國土空間에 관한 연구도 두 측면을 함께 다룸으로써 국토의 구조적 특성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個別要素의 연구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教授

는 결국 종합되어야만 하고, 국토의 部分地域들은 나름대로의 個性을 지닌다고 볼 때, 부분지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부터 국토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部分地域들이 지닌 相異性이 ‘地域性’으로 표현되며 이들이 앙상불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國土性’이다. 國學으로서의 地理學이 밝혀야 할 궁극적 목표는 바로 國土性を 구명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토는 그리 넓지는 못하지만 고도 3,000m에 가까운 산들과 해안선·구릉과 평야와 분지가 자리잡은 그 속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모습이 융해되어 있다. 이러한 實體에 바탕을 둔 공간적 다양성을 구명하는 것이 국토연구의 기본적 과제라고 본다.

지리학은 오늘날의 地表現象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지만, 現存하는 현상은 歷史性이 담긴 실체임을 감안할 때 민족이 살아온 歷史空間에 대한 연구도 강조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미래로 이어져야 할 생활공간에 대한 설계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우리 국토가 걸어온 길을 알리고 걸어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간적 다양성과 時間性으로 요약되는 두가지 관점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지향해야 할 本領이라고 본다.

국토연구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주요 地理書와 지리학 연구동향을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리학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國土에 대한 地理學的 研究動向

### (1) 朝鮮時代의 地理學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天·地·人의 三才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이 중에서도 地는 만물의 기반으로 중시하여 왔다. 한국인도 예로부

터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한 관심이 컸고 그것을 地圖와 地誌로 표현하였다.<sup>1)</sup>

朝鮮時代의 地理志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前期와 後期로 구분될 수 있는데, 前期는 국가경영의 기초를 제공해준 官撰地理志의 편찬시대이고, 後期는 향토 또는 고장의 문화력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邑誌類와 實學者에 의한 과학적 地理書의 저술시기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의 地方行政制度는 대체로 1413년(太宗 13年)의 개혁이 있던 뒤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sup>2)</sup> 지리서 작성의 기본단위는 京都를 비롯한 府·牧·郡·縣의 행정단위였다. 따라서 지리서가 편찬될 때마다 단위지역에 대한 기록이 누적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郡·縣 등은 단순한 행정단위라기보다는 지역공동체로서 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을 띄우는 生活空間으로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를 통하여 지리지의 편찬은 국운상승기나 민족자각의식이 팽배할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 朝鮮前期에는 한글을 창제하고 정신문화를 창달하며 국토확장에 힘쓴 世宗朝에 국토전역에 걸친 地誌인 「新撰八道地理志」와 「慶尙道地理志」가 완성되었으며, 朝鮮前期 地理書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동국여지승람」이 成宗 때에, 그리고 내용을 새로이 더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中宗 26年(1531)에 세상에 나왔다. 世宗代의 地理志는 왕조가 들어선 후 새로운 국가경영을 위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고, 부국강병정책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경제·군사·행정적 측면이 강조되는데 비하여 성종과 중종 때에는 유교적 윤리체계와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넓혀가는데 역점을 둔 결과 문화적 성격이 강한 지리지가 저술되었다고 보여진다.<sup>3)</sup> 이와 같은 의미 부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바치는 글과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sup>4)</sup> 「수천리의 지역을 문밖에 나가지 않고도 볼 수 있고, 몇백년의 사적이 손바닥 보듯 분명하다」고 언급

1) 建設部 國立地理院(1980), 韓國地誌 總論, p. 77.

2) 崔昌祚(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 250.

3) 楊普景(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別號 3, p. 7.

4) 민족문화추진회(1969),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 pp. 9-24.

하권서 연력은 한고을의 흥망을 알 수 있고, 풍속과 형승은 한 고을을 유지하는 힘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하여 「어찌 선비들이 총명을 열고 넓혀서 융성한 정치를 도우는데 그치겠읍니까」로 기록함을 볼 때, 국가경영을 넘어서서 지역실체 파악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있다. 이 시대에 어느 국가에서도 보기도문 지역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뛰어난 고전적 지역지리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조선전기 지리지에 나타난 地理思想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인간활동의 자연에 대한 의존과 순응의 관계는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최창조의 「風水思想」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山川」條에 鎮山을 명기하고 있는 점은 취락입지 선정에서 풍수사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朝鮮後期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사회질서를 복구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새로운 기운과 더불어 地方地誌인 邑誌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고 한다.<sup>6)</sup> 이 시대에 편찬된 읍지의 유형을 정리한 楊普景에 의하면, 향촌질서의 복구, 지방세력가의 위세함양, 향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군사적 성격과 환란대비, 忠·孝·烈· 등의 敎化的 성격강화, 지방재정현황의 기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7)</sup> 이것을 再分類하면 향토문화의 특성을 기술한 文化地誌와 군사 또는 재정을 강조한 特殊地誌로 나눌 수 있다.

文化地誌는 향토의 역사적 변동과정과 자연환경을 살피고, 경제, 군사, 민속, 예술, 인물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고장의 아름다움과 物産을 비롯하여 풍속과 인물의 훌륭한 점을 서술하여 地域文化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서술방식이 분석적이지 못하고 백과사전과 같은 나열의 형식을 취한 점과, 일정

지역을 국토의 부분공간이란 인식보다는 소우주적 공간으로 이해하여 지역간의 상호관련성을 취급하지 못한 점은 전통지리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지리서를 통하여 당시의 지역문화와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한국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편, 양대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 애국심이 고조되고, 이와 더불어 자국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실증적 학풍을 불러일으켰다. 실학자들의 애국적 열의는 국토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科學的 地理書가 저술되고 정밀한 地圖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몇가지 예를 들면, 한백겸의 「東國地理志」를 비롯하여 유형원의 「輿地志」, 이증환의 「擇里志」, 신경준의 「강계고」, 「산수고」, 홍양호의 「백두산고」, 「해로고」, 정약용의 「강역고」, 「지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대동지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地理書 중에서 한국의 명저인 「擇里志」를 중심으로 科學的 地理書의 分析方式을 살펴보기로 한다.

「八道秘密地誌」, 「八域可居誌」, 「八域誌」 등의 여러 이름을 지닌 「擇里志」는 오늘날 ‘科學的 體系化를 이룩한 人文地理書’<sup>8)</sup> ‘地理學으로서의 理論的 構成을 지닌 人文地理學’<sup>9)</sup>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택리지」의 저술목표는 그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같이 ‘인간이 살만한 곳(可居地)’을 국토공간상에서 찾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聚落의 最適場所의 發見’<sup>10)</sup> 또는 ‘最適生活空間의 추구’<sup>11)</sup>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청담은 總論에서 ‘만족한 경제생활의 원천은 富이며,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살만한 곳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理論定立의 방향을 제시한 후, 八道總論에서는 八道를 지역단위로 하여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을 다루고, 지역특성에 따른 인간의 살만한 곳을 추적하고 있다. 「卜居總論」에서는 聚落地論을 전개시켰다.

5) 崔昌祚(1984), 전계서, pp. 273-285.

6) 楊普景(1987), 전계서, p. 88.

7) 상계서, pp. 88-96.

8) 徐樹仁(1963), “擇里志研究序說”, 地理學, 第1號, 大韓地理學會, pp. 83-90.

9) 洪以燮(1949), 朝鮮科學史, 正音社, pp. 250-51.

10) Yoon, Hong-Key(1975), Taengni-Ji: A Classical Cultural Geography of the Korean Settlement.

11) 朴英漢(1977), “淸潭 李重煥의 地理思想에 關한 研究”, 駱山地理, 第4號, pp. 25-40.

청담이 추구한 最適生活空間은 自然的·經濟的·社會的·安保的 諸條件을 理想的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로 보이며, 현실세계에서는 이와같은 장소의 선정은 어려우므로 '비옥한 들판과 지리가 아름다운 곳을 택하여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으며, 10리 밖이나 혹은 반나절이 걸리는 곳에다가 名山이나 아름다운 물이 있는 데를 사서 매양 생각이 나면 한번씩 왕래하여 근심을 달래고 혹 유숙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최적장소로 보았다. 이러한 공간은 住居 및 生産空間과 休養空間의 효율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이처럼 청담의 지리서는 문제지향적 지역지리학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호의 업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신의 가호를 받은 불후의 지리학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開化期의 地理書는 실학파의 지리학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甲午更張에 따라 官制가 개혁되고 각급 학교에서 地理科目을 이수케 하자 수 많은 教科用 地理書가 발간되었다. 特히 張志淵의 「大韓新地誌, 1907」는 地理의 內容을 과학적으로 다룬 地誌로서 그 내용체계는 地文地理, 人文地理, 13道の 地方誌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sup>13)</sup> 이 지리서의 서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地理의 不在이다. 서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地理의 학문이 흥하지 않으면 애국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지리학의 부흥으로부터 애국심이 함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서는 말미에 北間島를 언급하여, 그것이 韓民族의 生活空間임을 명기시켜 주고 있다.<sup>14)</sup>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19세기 말에 이미 日人들은 數種에 달하는 朝鮮地誌를 저술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침략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2) 日帝의 強占과 韓國地理學의 暗黒期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한국인의 우수성과 자주독립정신을 말살하려 했다. 이들은 교과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여 수중에 달하는 지리도서를 무효화하거나 허가하지 않았다.<sup>15)</sup> 그리고, 초·중등 지리교과서에서도 그 말미에 「조선지방」이란 小題目으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열하였다.<sup>16)</sup> 이와 함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이들 정책은 고등교육기관에 지리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지리적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의 지리학 연구의 암흑기는 실학파의 지리사상을 이어 받을 수 없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광복 후상당기간 동안 한국지리학의 발전을 지연시킬 결과를 낳았다.

일제는 한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동질성을 파괴시킴은 물론 한국의 일이 서린 문화경관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또한 이들이 형성시켜 놓은 국토공간 구조의 파행성은 오늘날에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지리학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光復後 社會變動과 地理學

일제의 암흑기를 거쳐 1950년대 전반기까지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지리교육학파가 서울대와 경북대에 설치된 것 뿐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기를 거치면서 학문연구를 목적으로한 지리학과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에 지리학 관계 教授數는 15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다.<sup>1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지리학의 제 1세대들은 1945년에 지리화회를 구성하여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63년에는 대한지리학회지인 「地理學」 창간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학회지의 논문편수도 늘어나고 연구분야도 다양해졌다. 특기할 점은 1950년대 후반기 부터 미국 지리학계에서 일대 전기

12) 상계 논문, p. 29.

13) 張保雄(1970), "開化期의 地理教育", 地理學, 第 5 號, 大韓地理學會, pp. 41-58.

14) 建設部 國立地理院(1980), 전계서, p. 106.

15) 張保雄(1970), 전계 논문, pp. 49-50.

16) 姜錫午(1985), 改稿 新韓國地理, 大學教材出版社, 初版 序文에서.

17) 李 燦(1976), "地理學 30年の 회고와 전망", 地理學 13號, pp. 3-4.

를 마련한 計量革命의 여파가 1970년대에 이르러 韓國의 地理學會誌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sup>18)</sup>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대학에서 정규연구 과정을 거쳤거나 외국에 유학한 지리학도들이 귀국함에 따라, 현대지리학의 이론으로 무장한 이들이 이론을 검증하고 모델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계량적 방법의 도입과 함께 범칙추주의 과학으로 발돋움하려는 지리학은 논리실증주의에 심취하게 되고, 이것이 ‘근대화’라는 시대정신과 결합하게 됨에 따라 ‘공간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주류를 이루는 추세를 보였다. 「先成長・後分配」라는 成長主義의 사고방식이 팽배하고, 工業化가 곧 近代化라는 定式이 성립하였다. 地理學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결과 工業化와 都市化에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1970~1985년까지 「地理學」에 발표된 논문중에서 「도시」, 「인구」 및 「경제」 분야의 논문수가 무려 40%를 넘어서고 있다.

공업분야에서는 실증주의와 행태주의적 사고에 의한 立地論과 工業地域構造의 변동과정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sup>19)</sup> 都市分野에서도 都市體系分析과 中心地理論을 비롯하여 도시구조의 변동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부각되었다.<sup>20)</sup> 자연지리학분야에서도 지형학과 기후학연구가 새로운 이론도입으로 활기를 더해감에 따라 일제시대의 오류를 수정해 가고 있다.<sup>21)</sup>

1970년대는 ‘地理學의 科學化’에 몰두한 시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공간과학이란 차원에서 재정립된 新地理學을 傳統地理學에 대한 evolution 정도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新地理學의 理想을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格’<sup>22)</sup>이라고 본 견해이다. 이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지리학도

들의 ‘지리학의 이론화’에 대한 염원의 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대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와 지역의 균형개발정책의 복합은 성장주의로부터 지역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을 자극하고 있다. 아마도 ‘地方의 再發見’ 또는 ‘地方의 再認識’은 이러한 사고의 이행과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지리학의 연구도 국토공간구조의 재편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지역문제 —도시·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지리학에서 재생되기 시작하여 지역구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sup>23)</sup> 1980년대에 대한지리학회가 이룩한 업적은 「韓國地誌」 편찬사업이었다. 총 5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은 한국지리학계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북한지역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고자 한다. 「韓國地誌」에 대한 평가는 다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분량으로 보았을 때, 지방편에서 地域誌의 비중이 20%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지역연구」에 소홀하였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도 그 양은 많지 않지만 한국지리학의 진수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민가연구」, 「朝鮮時代 地理誌 研究」, 「朝鮮時代 産業研究」, 「한국지명연구」, 「古地圖研究」, 「風水思想究研」 등의 분야가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역사지리학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자료처리 등에서 계량적 기법의 사용이 비교적 적다. 이것은 개별성 또는 특수성을 추구하는 문화지리학의 전통과 관계되는 듯하다.<sup>24)</sup>

18) 상계논문, p. 5.

19) 朴杉沃(1983), “韓國 地理學에서 工業立地研究의 動向과 爭點”, 地理學論叢, 第10號, pp. 54-70.

20) 朴英漢(1983), “韓國 都市地理學의 研究動向과 都市理解의 方向”, 地理學論叢, 第10號, pp. 71-86.

21) 朴東源(1983), “韓國의 地形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展望”, 地理學論叢, 第10號, pp. 27-40.

22) 金 仁(1983), “地理學에서의 패러다임 理解와 爭點”, 地理學論叢, 第10號, p. 24.

23) 류우익(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현대사회, 제 6권 제 4호, 통권 24호, pp. 246-263.

朴英漢(1985), “文化와 地域主義”, 地方의 再發見, 民音社, pp. 209-228.

24) 李 燦(1983), “韓國 文化·歷史地理學의 研究動向과 諸問題”, 地理學論叢 第10號, pp. 41-53.

### 3. 國學으로서의 地理學：方法의 摸索

지난 4반세기 동안에 우리 국민은 ‘경제’라는 특급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처럼 한국의 지리학도들도 우주선 ‘공간호’에 편승하여 끝없는 우주여행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행에서 보고 느낀 점을 응용할 수 있는 고향인 지구에, 우리의 국토에 안착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면 한국의 지리학도가 지리학을 보는 관점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에 발표된 地理學의 本質을 다룬 연구물을 참조하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듯하다. 그 하나는 地域地理學을 傳統地理學으로, 空間分析地理學을 新地理學으로 구별하면서 지리학은 「地域主義에 입각한 地域地理學」과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空間分析地理學」의 양대 패러다임으로 분류된다는 견해이다.<sup>25)</sup> 또 하나는 1950년대를 고비로 그 이전은 지역지리지향의 근대지리학, 그 이후는 공간지리만을 내세우는 현대지리학 시대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접속의 문제가 지리학도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견해이다.<sup>26)</sup>

구체적 국토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한 민족의 지역적인 삶의 모습을 해명하려는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후자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단순히 個性記述의인 지역지리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간분석적 접근법을 원용한 科學的 地域地理學의 정립이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이다. 個性記述的 地域地理學으로 부터 說明的 地域地理學으로의 전환 문제는 지리학도에게 부여된 최대의 임무요, 오랜 숙원이었다. 사실 역사적 전개 과정이 상이하고 복잡한 환경이 내재된 지역을 법칙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地域的 相異性을 구명하려는 전통적 지역지리학은 포괄적인 서술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잇점은 있었으나 실용적이고 전문적이지는 못했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地域分析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실용적 부흥이 논의되면서<sup>27)</sup> 지역지리학의 과학화문제는 1970년대에 이르러 범세계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sup>28)</sup> 이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시스템이론의 적용과 문제지향적 측면의 강화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현시점에 있어서 地域地理學은 계통지리학이 수립한 이론과 개념의 수용을 통해서 생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科學化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지리학의 연구방법에 대하여 한국의 지리학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姜錫午 원로학자는 「新韓國地理」에서 地域性의 구명을 위한 地誌學의 分析과 綜合은 地理的 理法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대상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전망에 대한 고찰을 요한다고 하였다.<sup>29)</sup> 한편, 류우익 교수는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에서 지역내부 및 외부지역과의 관련성, 자연환경,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및 가치체계 등이 연구의 주제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지리학도가 행한 연구의 성과를 수용한다면, 지역지리학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방향이 정립될 것으로 본다. 즉, 朝鮮時代 地理誌에서 나타난 人間主體로 서술된 文化地理誌의 性格과 實學者들의 問題指向性地誌 그리고 現代 系統地理學의 思考들을 종합한다면, 국토이해를 위한 地域地理學의 접근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25) 金 仁(1986), “地理學의 本質·方法論·패러다임 爭點”, 金璟東·安淸市 編著, 韓國社會科學方法論의 探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pp.275-316.

26) 金相昊(1983), “地理學의 本質”, 地理學論叢, 第10號, pp.1-14.

27) 류우익(1986), 전계논문 참조.

28) International Geography '76 (1976), Regional Geography, MOSKVA 참조.

29) 姜錫午(1985), 전계서, pp.13-16.

30) 류우익(1986), 전계논문, pp.26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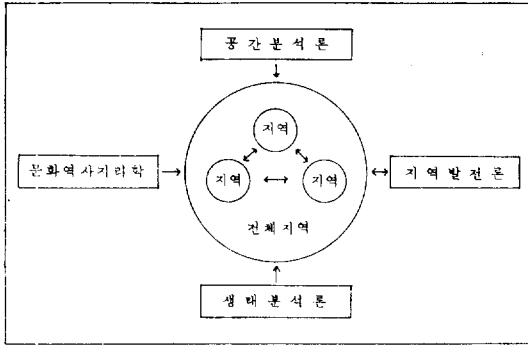


그림 1 : 지역지리학의 연구를 위한 분석틀

첫째, ‘문화역사지리적 접근’은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時代精神이 누적된 文化景觀의 형성을 비롯하여 종교, 언어, 관습 등의 비물질적 문화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집단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지역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가치체제와 동시에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특성은 지역주민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활동의 제약요소로 작용하므로 地域形成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역사적으로 누적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의 形成因이라고 볼 수 있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등의 종교와 풍수사상은 한국인의 의식바탕을 이루면서 국토에 스며 있으며, 누적의 정도에 따라 지역주민의 가치체제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 국토는 부분생활공간으로 구성되고,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의 質과 量의 差異로 말미암아 정보의 흐름이 발생한다. ‘공간분석적 접근’은 공간조직의 체계를 설명한다. 인간행동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구명하게 된다. 이때에 공간행동은 주민의 가치체제와 결합됨으로써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간조직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분석론’은 자연환경이 인간활동에 미치는 체계와 인간 활동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체계로 구성된다. 오늘의 한국적 상황을 보면, 인간활동의 부산물이 자연의 정화능력을 넘

어서러는 또는 넘어서는 과정에 있으므로, 인간활동이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생태계의 혼란은 과도한 자연이용과 이에 따른 무질서에서 나타난다. 생태계에 대한 思考는 인간과 자연간의 순조로운 관계인 調和觀에 서느냐, 아니면 적자생존의 원리를 내세운 자연정복관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생태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역시 주민의 가치관과 직결된다. 이러한 분석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느냐가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세째, 地域發展論은 현존하는 生活空間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다가오는 시대정신을 수용하여 새로운 생활공간의 특성과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理論開發이다. 특히, 전통적 지역지리학은 문제지향적이기 보다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서술에 치우친 결과 미래지향적 측면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현대지리학은 행복이 넘치는 생활공간을 설계하는데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발전론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상기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근대화의 물결(시대정신)이 국토공간상에 ‘工業化’로 투입되었을 때, 部分地域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나타나며 그것이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변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리학도의 관심사이다. 상기의 분석틀을 원용한 종합적 지역연구로부터 그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地域地理學은 地域科學(regional science)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형성된 지역과학은 주로 경제학·지리학·계획분야 등이 집합한 종합과학의 성격을 지닌 新生學問이다. 한국에서도 1983년 韓國地域學會가 창립되면서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아마도 지역과학의 정의와 대상 및 연구방법등의 체계정립은 地域地理學 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제학을 배경으로 출발한 지역과학은 추상적으로 정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체계적인 공간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

이라고 한다.<sup>31)</sup> 양학문이 유기적 관계를 정립한다면, 국토에 산재한 지역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삶의 공간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地域研究를 종합적으로 행하기 위한 선결문제는 ‘地域區分’이다. 地域이란 인접한 생활공간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內的現象間의 결합에 의하여 地域統合이 이루어진 同質的 生活空間의 單位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단위 지역들은 地域個體로서 全體空間속에서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均質空間이 統合된 地理區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문화적 유사성을 수용할 수 있는 生活圈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적 유사성을 지닌 數個의 郡이 이들을 결합시킬 중심도시를 지닌다면, 이것이 地域地理學이 요구하는 地理的 地域의 單位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地理的 地域은 Thünen의 고립국적인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본다. 이들의 上位地域은 문화적 동질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朝鮮時代의 八道로 조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같은 地域單位들은 時代의 변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하천이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생활공간의 결합력으로 작용하였던 시대에는 하천유역권이 중요한 문화권으로 등장하였으며, 철도와 도로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이 결합된 도시권이 문화권으로 출현하고 있다. 지역구분에 대한 논의는 금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수행해야 할 주요과제는 歷史空間의 해부를 통하여 한민족의 삶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공간적 기반을 이루는 最小生活空間으로부터 국가로 통합되는 생활공간에 대한 계층적 공간적 조직체계를 구명하고, 이러한 生活空間이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歷史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생활공간의 규모와 기능 및 구조를 살펴서 한 민족의 삶의 터전의 특성과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공간의 분석은 행정조직을 통한 制度的 生活空間과 시장조직 또는 통혼구조 등에 의한 自生的 生活空間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며, 이 양자의 관계를 찾아봄으로써 국토의 지역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의 과제는 先學들이 이룩한 업적을 평가하여 오늘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좌표를 삼자는 것이다.

#### 4. 國學으로서의 地理學：發展을 위한 몇가지 提言

지금까지 논의한 현황과 방법의 모색을 참고로 하여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제모습을 찾으려면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학회주관하에 「지역구분연구회」를 설치하여 地理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역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용으로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의 대학 또는 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제 연구소」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소는 어제와 오늘의 지역실상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리학이 지역사회와 혼연일체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며, 지리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길이다.

세째, 국토분석에 초석이 되는 계통지리학의 연구를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생태학과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지리」를 두 강좌 설치한 대학은 4개 대학 뿐이며, 자기 고장에 대한 지역연구과목을 설치한 대학은 하나 뿐이다.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네째, 국토사랑이 나라사랑이란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국토지리」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국토지리」는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자기 고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전문가의 양

31) 俞 浣(1985), “地理學의 定義와 再照明”, 地域研究, 第1號, 韓國地域學會, pp. 3-7.



성과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정부는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여섯째, 정부는 지역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센서스 항목을 늘리고, 그것을 하부 행정단위 별로 收合하여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전문가에게라도 정보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지역연구소」를 설치하든지 「북한연구소」에 지리관련부서를 강화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제언들이 해결된다면,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지역 주민의

삶의 특성을 고찰하여 한민족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지역문제를 구명하여 국토문제를 해결하려는 地域地理學은 국학으로서의 地理學이 나아갈 주요 방향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지리학의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이 民主的 地方時代를 맞이하려는 시점에 서있음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地域主義地理學이<sup>32)</sup> 해야할 임무가 막중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리학도의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최적생활공간의 추구야말로 理想郷에 도달하는 길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地域研究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32) 地域主義 地理學은 自立·自律·分散의 이념을 배경으로 全體性과 調和性이 내재된 問題指向의 地域地理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